

17, 18세기 남성의 가발형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블랙펄의 저주-”을 중심으로

최미옥 · 김성남[†]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The Forms of Man's Wig in Seventeen-Eighteen Century Focused on the movie “Pirates Of The Caribbean: The Curse of the Black Pearl”

Mi-Ouk, Choi · Sung-Nam, Kim[†]

Dept.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7. 8. 20. 접수/2007. 9. 21. 채택)

Abstract

With the beginning of seventeenth century, the men in France royal palace began to wear wigs and by eighteenth century wig became sole possession of men. Then, it had been become a satire thing filling one side of the era with the pouf that had been for women. All these things were closely related with the unstable social situation. The bourgeoisie expressed the anger for the privilege that come from the disparity of class consciousness. The reaction against the discriminative treatment by the illuminists stimulated the outbreak of the French Revolution on 14th, July in 1789. This paved way of characterizing the wig styles of the time. The symbolism of cultural-historical meaning in the west is not confined only in Europe. The worship of hair that is different from one cultural area to another had started with their own unique taboo consciousness and had developed to the form speaking for the expression of masculine, the symbol of man power and the extravagance of the privileged class.

Key words : Hair style(머리형태), Cultural meaning (문화사적 의미), Wig style(가발형태)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인간의 3가지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衣食住)’중 ‘나’를 대변하기에 가장 적합한 복식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미용’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듯 복식 패션이 인간에게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패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헤어’는 두말 할 나위 없이 미적

요인 뿐 아니라 인간 신체 일부로써 그 중요성은 한 단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두발의 중요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각종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빠짐없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탈모(loss hair)인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불문한다.

두발을 의미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발형 중 다양한 많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이 가발이며, 몸을 의복으로 치장하고 여러 종류의 디자인 액세서리로 돋보이게 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듯이 머리는 머리 카락 즉, 헤어 의상인 가발을 포함한 헤어 액세서리로 더욱 완성도 높은 패션을 창출해 낼 수 있다.

본 연구는 2003년 개봉된 “캐리비안의 해적-블랙

[†]Corresponding author: Sung-Nam, Kim
E-mail: idohair@hanmail.net

필의 저주”라는 영화를 바탕으로 영화속에 비춰진 17, 18세기의 남성 발형 중 그 형태와 착용목적, 신분에 따라 각각 달리 착용되어진 가발스타일을 통해 동시기 남성의 가발문화를 조명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서양 발형사에서 가장 독특한 변화양상을 보인 17, 18세기 남성의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시대를 대변할 만큼의 위력을 가진 헤어스타일 또는 가발의 형태를 재정립하고 이의 상징성을 고찰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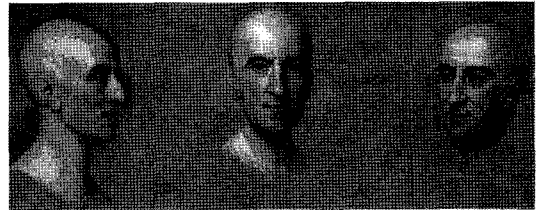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서양의 발형 역사중 살펴보면 남성의 가발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7, 18를 배경으로 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 블랙필의 저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통해 이들의 헤어스타일을 조명하였으며 시대적 배경과, 헤어스타일, 영화줄거리 등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의 헤어스타일은 가발의 형태라는 의미로 축소 하여 전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 복식사와 미용문화사를 기준으로한 2차적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시대적 배경과 헤어스타일을 살펴봄과 동시에 신뢰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인터넷 검색을 추가로 병행하여 영화와 비교·분석 하였다.

II. 본 론

1. 17, 18세기 시대적 배경

스페인어인 ‘Barrucca’에서 유래한 ‘일그러진 진주’란 뜻이 있는 바로크(Baroque)는 르네상스의 고전적 균형과 조화보다 강렬함과 기묘한 이미지가 강조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프랑스 궁전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가발이 유행하게 되는 이 시기는 가발을 쓸 때는 흔히 전분이나 밀가루로 만든 분을 가발에 뿌리는 것이 관례였다. 말이나 양털 등이 주요 소재로 사용되거나 회색, 청동색의 가루를 뿌리기도 하였으며, 가발을 쓰지 않은 경우에도 최신 유행의 가발 스타일로 머리를 단장하고 분을 뿌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던바 이러한 연유로 18세기 초상화에 등장하는 남자들의 머리는 대부분 백발로 보이는 것이다. 1660년대 이후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어깨와 가슴으로 내리 떨어지도록 하여 앞머리를 뒤로 빚어 넘긴 페리위그(periwig)스타일이나 매우 무겁고 거대한 가발로 풀



〈그림 1〉 고드프리넬러, (노팅엄백작)1715~1720, 유화 런던, 국립초상화미술관

버텨위그(full bottom wig)스타일이 유행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의 풍탕류에 필적되는 남성의 아론제스타일은 1670년을 지나면서 더욱더 커지기 시작하여서 한 가운데를 가르마로 나눈 후 좌우를 높게 부풀려 길어도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한 후 최종적으로 파우더까지 뿌려 남성머리 역사상 가장 크고 과장된 스타일을 연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프랑스 궁정에만도 200여명의 가발사들이 있었다는 기록은 결코 부풀려진 사실이 아님이 분명할 뿐 아니라 이 시기 스타일은 가발 또는 삭발 두 가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7세기 말 프랑스는 루이 14세의 모든 행적이 계층을 불문한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쳐 의복과 장신구는 물론 헤어에 이르기까지 필요 이상으로 꾸미게 되면서 이른바 바로크 양식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종교의 지배를 벗어난 시대사에 부응하는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으로 현세의 안락함 추구를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게 되었다.¹⁾

18세기에는 유럽의 남성들에게 있어 가발의 의미는 단순한 장신구 그 이상이어서 가발을 쓰지 않고는 공공행사나 사교모임에 참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가발을 쓰지 않고는 상류사회의 연회나 모임에는 갈 수도 없었으며 남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1740년대에 이르면서 가발 대신 머릿가름을 바르고 분을 칠했던 때와는 반대로 최하층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의 남성들이 가발을 필수품으로 사용하였다.

사상적으로 이성 만능의 시대였으며, 사회적으로는 향락 추구의 시대이기도 했던 로코코 양식은 우아하고 섬세한 곡선의 형태가 유행하였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로코코’라는 어원 자체도 루이 15세 시대에 쓰였던 장식문양에서 유래하여 프랑스어의 ‘로카유(rocaille)’에 어원을 두고 ‘작은 돌, 자갈’이라는 뜻이나 미술양식 면으로는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에 만들어진 조개껍데기 모양의 곡선이 갖는 장식 모티브를

<표 1> 다양한 형태의 가발

가발명칭	가발형태	비고	가발명칭	가발형태	비고
☆ bob wig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겨 목이 보일 정도로 짧거나 가리는 긴 형. 머리끝은 둥근 칼이나 웨이브로 다듬어 정장 아닌 복장시 착용	★ 말기 foretop		자연모나 가발의 앞머리를 toupees라 칭하며 솟아서 퍼진 fortop형태
☆ cadogan wig		머리를 뒤 중심에서 모아 리본으로 묶고 리본의 나머지 부분을 앞목에서 브로치로 고정시킨 형태	★ buckle과 변형형		옆머리 가발로써 1~5개까지의 수평적 roll curl을 한 형태.
☆ cut wig		매우 작고 짧으며 마부, 직공, 기술들이 착용하였으며 머리전체를 곱슬, 굽은 웨이브, 직모 스타일로 착용	☆ campaign wig		술이 무척 많고 복싱거리의 knotted wig를 일컫는 형태로 travelling wig라고도 함.
★ pigtail wig		길게 쌓은 머리에 머리끝과 뒷목에서 리본을 나비형으로 묶어 정장이 아닌 복장에 스마트한 스타일로 착용	★ club wig		toupees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카토간 (club)을 매우 크게한 형태
★ bag wig		머리를 검정색 네모난 주머니에 넣고 뒷목에서 정색 리본으로 나비처럼 묶어 정장차림에 착용	☆ pigeon wing wig		자연스러운 잔 곱슬이나 굽은 곱슬을 늘어뜨린 형태.
★ ramille wig		머리를 길게 쌓아서 뒷목과 맨 끝을 검정색 리본으로 매거나 끝만 맨형으로 엉구 근위병장교나 젊은총이 착용	★ solitaire tie wig		머리를 묶는 리본 꼬리를 길게 하여 목 뒤에서 앞으로 돌려 앞쪽에 서 묶은 형태.
☆ peri wig		앞머리를 뒤로 빗어 넘긴 형으로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어깨와 앞가슴으로 내리달리며 가루를 뿌린 형태.	★ major wig		major wig는 1개의 쌓은머리를 brigadier wig는 2개의 쌓은머리를 장식하여 혼용하여 사용.
★ macaronis toupee		위로 넓게 퍼져 앞에서 뒤로 빗어 넘겨 정수리나 목 쪽으로 머리전체를 앞머리로 덮은 형태 중 극단적 과장형태	★ brigadier wig		2개의 쌓은 머리를 작은 리본이 가발이 옆쪽 아래에 장식되도록 한 형태
★ grecque toupee		macaronis toupee보다 높이가 낮아지고 다시 뒤로 넘기는 형태	☆ brigadier wig		full-bottom wig가 짧아지면서 쌓아 늘린 머릿도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매우 긴 쌓은 가발형을 선호하기도 함
★ scratch wig		평상시도 착용 가능한 작은 가발을 총칭하는 형태.			

☆전체가발, ★부분가발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러한 로코코 양식은 산업혁명(1780~1830)과 프랑스 혁명(1789~1799) 등을

계기로 근대사회 형성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²⁾

중반이 되면서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곧 가발의 스타일을 의미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천편일률적인 가발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시기로 주머니 가발, 결발, 피그테일 등 새로운 양식이 생겨나고 가발에 가루를 뿌리는 관습도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1764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가발백과사전』은 이미 115종류의 가발을 소개³⁾하였고 심지어 유행에 민감한 영국 남성들은 거대한 가발을 착용해 당시 언론에서 많은 풍자의 대상이 되었다. 유럽 남성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치장을 하였는데 각종 장신구는 물론 얼굴화장과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 향수, 애교점(patch), 입술 연고, 영양크림 등을 즐겨 사용하였다. 상대적으로 기본적 남성 복식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어 가발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 블랙펄의 저주”를 통한 헤어스타일

17세기의 거대한 가발인 풀버텀 위그(full bottomed Wig)는 1710년경부터 높이가 줄어들고 길이가 짧아져서 좀 더 편리한 가발이 되었다. 풀버텀 위그는 1730년대부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노인·궁정복에만 이용되고 법관이나 성직자들의 위엄을 위한 것으로만 남게 되었다.⁴⁾ 풀버텀 처럼 거대하고 무거운 가발은 자신의 머리를 면도하거나 짧게 깎아야 꼭 맞게 쓸 수 있었고 활동하기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18세기 초까지 서유럽 상류층에서는 필수적이었다.

17, 18세기 초까지 유행하던 남성가발은 소위 전두가발(full-bottomed wig)로 수많은 곱(curl)을 가진 크고 무거운 형태이다. 이 가발은 프랑스에서 오랜 광명생활 뒤 1660년 왕정복고로 영국의 왕위에 오른 찰스 2세(charlesII)에 의해 영국에서도 유행하게 된다. 그러나 전두가발은 지나치게 크고 무거워 실용성이 많이 떨어졌고, 그 결과 18세기로 들어오면서 남성가발은 점차 작고 가벼워지는 경향을 띠며 용도나 기능에 따라 가발의 형태도 다양해 진다. 예를 들어 18세기 초 잦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두가발보다 가벼운 중군가발(campaign wig)이 등장하여 18세기 중엽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1720년대 부터는 좀더 짧고 가벼운 주머니 가발(bag wig)이 등장하여 이후 18세기를 통틀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발이 된다.⁵⁾

고어 버빈스키 감독의 “캐리비안의 해적 - 블랙펄의 저주”(Pirates Of The Caribbean: The Curse Of The Black Pearl, 2003)는 해적 황금기에서 몰락기의

캐리비안을 무대로 해적 캡틴 잭 스페로우가 사악한 해적 캡틴 바르보사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되는 장면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다. 캡틴 바르보사가 잭 스페로우의 해적선 ‘블랙펄(Black Pearl)’을 훔친 다음, 포트 로열(Port Royal)을 공격하여 총독의 아름다운 딸 엘리자베스 스완을 납치하게 된다. 평민 신분이지만 엘리자베스와 어린 시절 친구인 윌 터너는 잭 스페로우와 손을 잡고 영국 함대 중에서도 가장 빠른 배인 H.M.S. 인터셉터(Interceptor) 호를 지휘하여 엘리자베스도 구하고 블랙펄 호도 되찾으려는 작전에 돌입한다. 그러나 두 사람과 그들의 보잘 것 없는 부하들은 엘리자베스의 약혼자이자 호방한 제독인 노링턴과 그가 지휘하는 H.M.S. 돈트리스(Dauntless) 호의 추격을 받게 된다. 한편 캡틴 바르보사가 약탈한 저주받은 보물들로 인해 그 자신은 물론 부하들을 영원히 죽을 수 없도록 저주를 받아 그들 해적들은 월광을 받으면 살아있는 해골로 변해버리고 그 저주는 그들이 훔친 보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원래 있던 그대로 되돌려놓아야만 풀릴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노링턴 제독과 그의 군대, 캡틴 잭 스페로우와 윌 터너는 인터셉터 호와 돈트리스 호를 타고 바르보사를 비롯한 초자연적 신비를 가진 해적들과 대적하기 위해 이슬라 데무에르타(죽음의 섬: Isla de Muerta)로 달려간다. 이 영화는 캡틴 잭 스페로우가 바르보사에게 복수하고 블랙펄 호를 되찾을 수 있을지, 바르보사와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영원히 해골로 살도록 만든 무시무시한 저주는 풀릴 수 있을 것인가 총독의 딸 엘리자베스를 구조하려고 떠난 대원들을 뒤쫓는 영국 해군은 먼저 엘리자베스를 구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주인공 영웅들은 초자연적 해골인간 해적들을 무찌르려면 과연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지⁶⁾ 등 그 흥미진진한 결말이 기대되는 영화이다.

· peri wig 앞머리를 뒤로 빗어 넘긴 형으로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어깨와 앞가슴으로 내리덮이며 가루를 뿌린 형태. [그림 2, 3, 7]

· buckle Wig 옆머리 가발로써 1~5개까지의 수평적 roll curl을 한 변형형. [그림 4, 5]

· ramillie wig 머리를 길게 땅아서 뒷목과 맨 끝을 검정색 리본으로 매거나 끝만 맨형으로 영국 근위병 장교나 젊은층이 착용. 그 끝이 보이는 여부에 따라 pigtail wig와 달리하며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길게 땅아 늘어뜨리지 않고 한 데 묶어 검정색 리본으로 매거나 [그림 6] 끝을 정리하여 보이지 않게 묶



<그림 2> peri wig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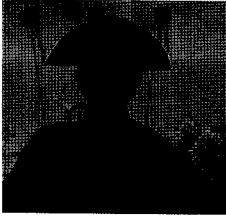
<그림 3> peri wig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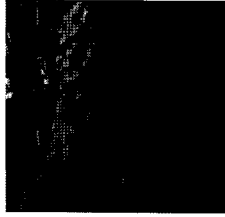
<그림 4> buckle Wig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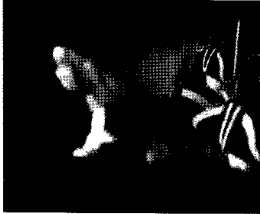
<그림 5> buckle Wig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



<그림 6> ramillie wig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



<그림 7> peri wig(뒷면)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



<그림 8> ramillie wig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

은 변형형으로 쓰이고 있다. [그림 8]

III. 결 론

서양의 가발역사를 되짚어 보면 지속되는 전쟁과 혁명의 여파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1780년대 프랑스 혁명(1789~1795)은 복장에서 귀족 복장을 밀어내고 복장의 민주화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가발의 사용도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 변발과 가발이 사라졌던 것처럼 전쟁의 시작과 끝에는 늘 산업발전이 함께 하였다. 또한, 가발은 미용의 한 분야로서만이 아니라 서양 권위의식의 대표적 상징물로써 종교인, 군인, 법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의식과 계급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왕가의 변성과 몰락으로 인해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17, 18세기 가발에 내포된 문화적 상징성을 살펴볼 수 있다.

1. 관습적 해석

머리카락은 인종과 문화권을 막론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신성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비단 유럽에만 국한된 관습이 아닌 문화권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뿐 머리를 신성시하고 그 연장인 머리카락을 소중히 다룸으로써 그들만의 독특한 터부의식으로 신과 가까워지고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2. 남성성의 표출

18세기 초상화에서는 삭발한 모습이 아닌 가발을 착용한 반쪽의 진실만을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그들에게 과연 가발이 내포하고 있는 내면의 반쪽 진실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필립메르시에의 작품 중 주인공인 이지부인(Lady Easy)

이 남편과 그녀의 불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삭발한 머리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감싸주려 혹은 가려 주려 하고 있다.⁷⁾ 이렇듯 그 당시 가발을 벗고 맨머리를 드러내는 행위는 성적인 의도나 의미를 내포하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그림 9] 필립메르시에 <부주의한 남편> 1728.유화, 101×127 cm 요크시립미술관

3. 권위의 상징

18세기에 가발과 이를 둘러싼 담론은 일종의 기호 체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체계 속에서 가발은 기표(signifier)이고 이에 상응하는 기의(signified)는 남성성 내지는 남성성으로 대표되는 권위나 권력을 상징하였다. 가발의 의미는 이미 형태적 의미를 넘어서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며 가발의 상실이나 제거 또한 정치적 패배나 도덕적 타락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으



<그림 9> 필립메르시에 <부주의한 남편> 1728.유화, 101x127 cm 요크시립미술관

며 18세기를 가발시대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4. 특권층만의 사치

1760년경 헤어스타일은 인조 모발을 이용하여 점차 높아지고 거대해졌으며 예술적이고 환상적인 로코코의 여성이라 불린 마리 앙투아네트 시대에는 높이와 장식, 기교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의 한계까지 도달하였다.⁸⁾ 마리앙투아네트 즉위 후 1년 동안 사치는 극에 달하였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헤어스타일이 등장하였는데 1768년 이 거대한 머리는 푸프 스타일로 불려지며 1769년까지 1200종류의 다양한 대표적 형

태가 존재했다.

이렇듯 가발의 형태만으로도 한 시대의 문화사적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음과 동시에 생활양식을 읽을 수 있다. 미래에는 다양한 의식전환을 통해 새로운 개성표현의 상징물로서 헤어가 또 하나의 미용장르가 아닌 신체일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에서의 후속연구가 뒷받침 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정 현(2004) “지도층 여인의 스타일 연구-서양과 한국 중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p.8.
- 2) 정 현(2004) “지도층 여인의 스타일 연구-서양과 한국 중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pp.9-10.
- 3) 막스 폰 뷔(2000) 『패션의 역사』 천미수 역, 한길아트, p.90.
- 4) 신상욱(2002). 『서양 복식사』, p.217.
- 5) Aileen Ribeiro, “Dress in Eighteenth-Century Europe 1715-1789”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3, pp.28-29.
- 6) <http://movie.naver.com>
- 7) Pointon, Hanging the Head, pp.119-120.
- 8) 안유리(2004). “18세기 로코코의 Hair Fashion의 영향”,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p.36.